

커뮤니티케어 선도사업 8개 지자체 선정

지역사회 실정 맞는 통합돌봄 서비스 제공

2년간 진행 ... 우수 모델 발굴해 전국 확산

지역사회 통합돌봄(커뮤니티케어) 선도사업을 추진할 8개 지방자치단체를 선정했다고 보건복지부가 4월 4일 밝혔다. 선도사업은 지역의 실정에 맞는 다양한 통합돌봄 모델을 발굴하고 검증하기 위해 올해 6월부터 2년 간 실시된다.

‘노인 선도사업’ 지역은 △광주광역시 서구 △경기도 부천시 △충청남도 천안시 △전라북도 전주시 △경상남도 김해시 등 5곳이다. ‘장애인 선도사업’ 지역은 △대구광역시 남구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등 2곳이다. ‘정신질환자 선도사업’ 지역은 △경기도 화성시 1곳이다.

커뮤니티케어는 돌봄이 필요한 국민이 살던 곳에서 본인의 욕구에 맞는 다양한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하는 혁신적인 정책이다.

정부는 ‘지역사회 통합돌봄 기본계획(1단계 노인 커뮤니티케어)’을 2018년 11월 20일 발표했으며, 이어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 추진계획’을 2019년 1월 10일 발표한 바 있다. 공모를 통해 선도사업에 참여할 지자체를 신청받았으며, 선도사업 심사위원회에서 심사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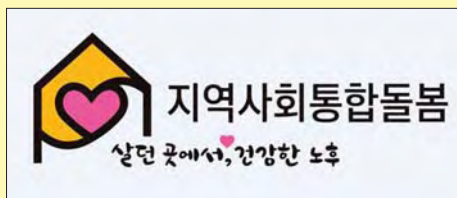
선도사업 지역으로 선정된 지자체들은 돌봄이 필요한 사람들이 한 곳에서 상담과 안내를 받고 신청할 수 있도록 읍면동 주민센터에 전담창구(케어안내창구)를 마련하는 계획을 공통적으로 제시했다. 또한 시·군·구 전담조직 설치, 추가인력 투입, 보건의료계 참여 및 민간 서비스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는 민·관 협력 모델을 제시한 것으로 평가됐다.

앞으로 지자체가 선도사업을 기획하고 실행하는 과정에서 지역주민의 욕구를 실제 확인해 필요한 다양한 서비스를 자주적으로 개발해 제공하게 된다.

복합적인 욕구를 가진 대상자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자체가 보건의료, 요양, 돌봄, 주거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민간단체와 협력하는 다양한 민·관 협력 전달체계의 모델을 마련한다.

선도사업 추진과정에서 우수사례를 발굴해 향후 지역사회 통합돌봄 서비스의 보편적 제공단계에서 전국의 다른 지자체로 확산시켜 나갈 계획이다.

또한 지역사회 통합돌봄의 확산과 보편적 제공에 필요한 재원 조달과 지자체에 대한 재정적 인센티브 제공방안을 연구해 나갈 계획이다.



지자체가 선도사업을 시행해 불필요한 ‘사회적 입원’을 줄임으로써 절감되는 사회보험 재원 규모에 대한 실증자료를 확보하고, 지역주민에 대한 통합돌봄 서비스 제공을 확대하는 지자체에 재정적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도 함께 모색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선도사업 지자체가 준비한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역케어회의 운영방안 등 7개 과정에 걸쳐 지자체 공무원, 민간 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5월부터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지역사회 통합돌봄 전문가 자문단’을 구성해 지원할 계획이다. 복지부 관련 부서, 국민건강보험공단, 선도사업 지자체 등이 참여하는 ‘선도사업 운영 협의체’도 구성한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이번엔 ‘노인 예비형 선도사업’ 지역으로 8개 지자체를 별도로 선정했다. △부산광역시 진구 △부산광역시 북구 △경기도 안산시 △경기도 남양주시 △충청북도 진천군 △충청남도 청양군 △전라남도 순천시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등이다.

이들 지자체에서는 선도사업의 일부 재정 지원 사업을 제외한 재가 의료급여 시범사업, 건강보험으로 운영하는 방문진료 시범사업, 요양병원 퇴원 지원사업 등 거의 모든 연계사업에 동등한 수준으로 참여 가능하다. 선도사업 지자체와 동일하게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 지자체’ 브랜드를 사용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 배병준 사회복지정책실장 겸 커뮤니티케어 추진본부장은 “선도사업 결과 도출된 우수한 모델을 발굴해 전국 지자체로 확산하는 것이 목표”라면서 “중앙정부는 법·제도 정비, 재정 인센티브 제공 및 서비스 품질관리를, 지자체는 통합돌봄 서비스 기획 및 서비스 제공 책임을 분담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규숙 기자 kschung@koreanurse.or.kr

간헐, 강원 산불 피해주민 지원활동

간호봉사단 급파 ... 의료지원 및 심리상담 진행

간호사 피해 현황 파악해 위로금 지급 예정

대한간호협회는 강원도 산불 피해지역 중 규모가 큰 고성과 속초 지역에 봉사단을 4월 8일 긴급 파견했다.

대한간호협회(회장 신경림)는 강원도간호사회(회장 장희정)와 정신간호사회(회장 박예란), 보건진료소장회 강원지회(회장 김영남), 그리고 간호협회 산하 봉사조직인 중앙간호봉사단(단장 강은영)과 함께 봉사단을 보냈다.

대한간호협회는 임시주거시설이 마련된 고성군 아이진초등학교 체육관, 천진초등학교 체육관, 동광중학교 체육관 등 3곳과 속초시 장천마을경로당, 한국토지주택공사 연수원 등 2곳에 봉사단 인력을 파견해 의료지원과 건강 및 심리상담 등을 지원하고 있다.

이와 함께 재해를 입고 교통과 실의에 빠진 강원도 고성과 속초, 강릉, 동해, 인제지역 주민들을 돕기 위한 구호성금을 강원도에 전

달할 계획이다.

대한간호협회는 또한 이번 산불로 피해를 입은 간호사 회원들의 현황을 강원도간호사회를 통해 접수받고 있다. 회원 중 이번 산불로 상해를 입었거나 어려움에 처해 있을 경우 별도의 위로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봉사단 파견에 앞서 대한간호협회 신경림 회장은 손혜숙 상근이사와 4월 7일 피해지역을 직접 찾아 현장을 둘러봤다. 이어 강원도간호사회 장희정 회장, 김병희 부회장, 윤봉남 이사와 보건진료소장회 강원지회 김영남 지회장, 강원도간호사회 속초분회 정영희 분회장, 박정미 보광병원 간호부장, 이순자 정오양병원 간호부장 등 강원도간호사회 임원 및 피해지역 간호부서장이 참석한 가운데 대책회의를 가졌다.

또한 속초의료원 입구까지 불길 이 번진 상황에서 침착하게 환자를



대한간호협회는 강원도 산불 피해지역인 고성군(사진 위) 및 속초시(사진 아래)에 마련된 임시주거시설에 봉사단을 긴급 파견했다.



을 모두 부상자 없이 이동시킨 전속 간호과장과 수간호사 3명을 격려했다.

신경림 대한간호협회장은 이날 회의에서 “산불 피해를 입은 지역 주민들이 하루빨리 실의를 딛고 재기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힘을 모으자”면서 “전국의 회원들과 임직원이 협심해 활용 가능한 모든 지원 방안을 마련해 나가자”고 말했다.

한편 4월 4일 오후 강원도 고성

병원 내 비상벨·보안인력 의무화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 방안 발표

폭행 발생비율이 높은 일정 규모 이상의 병원과 정신의료기관에는 비상벨, 비상문, 보안인력을 의무적으로 갖춰야 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 방안’을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거쳐 확정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그동안 환자안전관리체계를 마련하고, 보안인력 배치 등 응급실 안전관리 대책을 추진해왔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임세원 교수 사망사건은 응급실뿐 아니라 의료기관 전반의 안

전시스템 개선 필요성에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됐다.

이번 방안은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을 통한 국민건강 보호’를 비전으로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 △정신질환 치료·관리체계 개선 △사회적 인식 개선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통해 병원 내 폭행발생률을 절반 수준으로 줄이고, 정신질환자의 퇴원 후 재입원율도 절반으로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각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다.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 = 폭행 발생비율이 높은 일정규모 이상 병

원과 정신병원, 정신과의원에는 비상벨, 비상문, 보안인력을 의무적으로 갖추도록 의료기관 준수사항에 반영한다.

의료기관과 경찰청과의 협조체계를 강화한다. 비상벨을 누르면 지방경찰청과 연계돼 빠른 시간 내 경찰이 출동할 수 있는 긴급출동시스템을 구축한다.

일정규모 이상 병원에서 안전한 진료환경 구축을 위한 시설과 인력을 확보할 경우 일정 비용을 국가로 지원한다. 사전예방 및 신속대응 요령을 담은 안전진료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의료기관에 배포·게시할 계획이다. 병원 내 폭행사건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다.

△정신질환 치료·관리체계 개선 = 정신질환 발생 초기에 치료서비스를 집중 제공할 계획이다. 주요

거점병원에 전문의·간호사·사회복지사로 구성된 ‘다학제 사례관리팀’을 설치해 정신질환 초기환자가 퇴원 후에도 집중적인 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

낮 병원을 현재의 2배 수준으로 확대하고, 수가 개선을 추진한다.

△사회적 인식 개선 = 안전한 진료환경이 국민의 안전을 지킨다는 사회적 인식을 확산하기 위해 캠페인, 포스터, 방송홍보를 추진한다. 가이드라인 마련, 캠페인 실시는 올 상반기부터, 보안설비·인력 관련 기준은 하위법령 개정을 거쳐 하반기부터 시행될 계획이다. 외래치료지원제 등 충분한 준비기간이 필요한 사항은 내년에 시행되도록 추진할 방침이다.

주혜진 기자 hjjo@

牛歩千里 한국콜마



프랑스 최초의 BB크림 누가 만들었을까?

뷰티 본고장 프랑스에서 최고의 인기를 끈

에르보리안 BB·CC 크림을

‘한국콜마’가 만들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모르셨대구요? 그럴 수밖에요

화장품 제조사는 당신의 눈에 띄지 않는 화장품 뒷면에 있으니까요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는 세계적인 기업들의 화장품을 연구 제조하는

글로벌 NO.1 화장품 제조사 ‘한국콜마’입니다

제조사를 확인하세요!

화장품 품질을 확인하는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kolmar
한국콜마

좋은 화장품 고르는 방법
제조사를 확인하세요!

CGMP 1호·2호 한국콜마
(우수화장품 제조 및 품질관리 기업)